

‘제8회 한일신학자학술회의’에 대하여

세이가쿠인대학교 종합연구소소장 시미즈 마사유키 (清水正之)
낙운해 (洛雲海) 역

2018년 11월 16일 세이가쿠인대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제8회 한일 신학자 학술회의 — 한일신학심포지엄 2018’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2008년에 체결된 양대학교간의 학술 교류 ‘신학자 학술회의’ 협정에 기초해 개최되는 것입니다. 격년으로 각각의 캠퍼스에서 개최한다는 협정의 취지에 따라 금년은 세이가쿠인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무대로 ‘루터 종교 개혁 500년’을 기념하는 회의가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세이가쿠인대학교와의 교류를 보다 긴밀하게 한층 더 깊이 있게 하는데 기념할만한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 때의 다음 번 주제 등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2018년도의 학술회의는 ‘인간론’을 주제로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이가쿠인대학교로서는 그리스도교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적 상황들을 감안하고, 또 교원 스태프의 진용도 이 주제에 찬성하여 금년도의 개최에 이르렀습니다.

세이가쿠인 종합연구소에서는 이 학술 교류를 3개의 연구센터 중 하나인 ‘문화종합연구소’ 아래의 연구회로서 자리매김하여 그 주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가쿠인대학교 그리고 종합연구소가 계속 하고 있는 주요한 국제적 학술 교류입니다.

이번 주제는 ‘그리스도교적 인간론’으로 정하고, 일본 측에서는 가타야나기 에이이치 교수님, 한국 측에서는 김도훈 교수님이 각각 주제강연을 맡으셨으며 그에 대한 논찬을 가타야나기 교수님에 대해서는 백충현 조교수님이, 김도훈 교수님에 대해서는 무라세 아마테오 특임강사님이 맡으셨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두 학교가 일년에 한 번 아주 조용하고 평온하게 그리고 영적이며 학술적인 교류의 장을 갖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양국간의 정

의와 평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회의 도중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측의 대표이신 신옥수 교수님에 의한 설교가 전학년 예배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힘 있는 명석한 설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주제를 2019년 학술회의에서도 계속하기로 회의 결과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는 최초로 이 주제 아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방향은 기대이상으로, 앞으로의 결실을 예감하게 해주는 것이었다고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신학, 성서학, 철학, 윤리학, 과학사·과학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와 응답에는 주제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화제가 되어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심포지엄은 또 그 이상으로 양쪽에서 쌓아온 실적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강연하신 한일의 교수님들, 카타야나기 에이이치 교수님, 김도훈 교수님, 그에 대해 논찬·대론(對論)의 역할을 맡으신 무라세 아마테오 특임강사님, 백충현조교수님께 재차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사회를 맡으신 타카하시 요시부미 교수님, 매년의 일이지만 원고의 번역과 당일의 통역을 뛰어난 어학실력으로 완수하신 낙운해 장로회신학대학교 조교수님, 백정환 일본기독교단 요우가교회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 심포지엄 개최까지 코디네이트를 해 주신 시마다 유키 준교수님은 이 회의를 향후 담당하게 될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부분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주도면밀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주시고 회의의 일체의 운영을 돕고 잘 감당해 주신 와타나베 마사토 교수님(사무국장·학술지원부장), 키쿠치 미키 직원(학술 지원부 과장)을 비롯해 스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일본에 오신 교수님들을 세이가쿠인대학교다운 접대로 담당해 주신 쿠보 테츠야 주사를 비롯해 그리스도교센터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는 서울에서 계속 ‘그리스도교적 인간론’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지만 한층 더 주제가 깊어져 긴밀한 지적 협동의 장이 전개되기를 기원하며 금년도의 보고로 합니다.